

# 익산 식품클러스터 분양 활기

### 바이텍, 추가 분양으로 투자 확대·세계로, 70억원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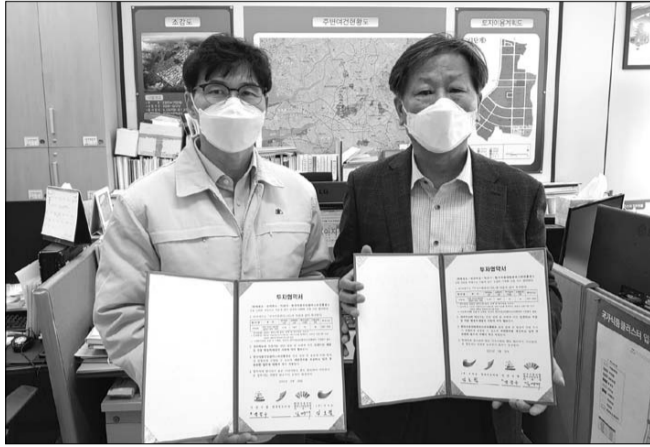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분양계약을 잇달아 체결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15일과 19일에 (주)바이텍(대표 이도행), (주)세계로(대표 김호철) 기업들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바이텍은 로열젤리, 오메가-7,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의 미래시장을 선도하는 소재 기업으로 지난 2018년 10월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계약을 한 바 있다. 이를 통한 매출 증대로 승승장구해 생약 추출·분말 공장 증축 등을 위한 1만2,881.4㎡(3,897평) 부지를 추가 분양하며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세계로는 포장 필름, 보온·보냉팩 전문 제조기업으로 배달업 시장이 급증함에 따른 포장지 사용 증가로 공급량 증가를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분양을 체결했다. 총 1만1,191.4㎡(3,385.4평) 부지에 약 70억원을 투자해 34명의 고용인원을 창출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에 착공,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침체된 취업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



익산시는 지난 15일과 19일 (주)바이텍, (주)세계로(기업들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분양계약을 통해 기업은 국가 식품클러스터가 가지고 있는 농식품 원료, R&D, 판로, 수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활용해 익산시, 농식품부, 전라북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함께 새로운 성장 활

로를 모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분양계약 체결을 결정해준 기업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한다"며 "익산시 투자기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행정적 지원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시 산업단지 일원 기반시설 정비

### 17억원 들여 주변환경 등 개선키로

군산시가 산업단지 일원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기업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해 관내 산업단지 일원의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변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주요 사업대상별 사업비는 농촌지역 소재 농공단지 4개소(중군산, 서군산, 성산, 임피)에 11억, 소용동 일원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 6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시는 20년 이상된 노후산업단지의 관리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입주기업에게 보다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지난해에는 산업단지 내 파손된 도

로를 보수하고, 인도정비, 전기·조경 및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입주기업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했으며 산업단지의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울타리를 정비해 환경개선과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3월부터는 군산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일원의 노후 도로를 정비해 운송여건을 개선하고, 농공단지 일원의 기반시설 및 파손된 보행로 정비를 통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향상시키고, 노후시설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통상황이 불편한 농공단지의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수시로 기반시설을 점검하고 있으며 강설·강우 등 재난 대비 긴급복구 장비투입과 다양한 시설물 이상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를 위해 전문업체와 단계계약을 체결, 대비해오고 있다. /군산=고병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원광대병원, 코로나19 "1차 예방 접종 완료"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윤권하)이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보건의료인 및 환자 접점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예방접종은 원내와 센터 방문 접종을 통해 진행했다. 접종 대상자 1,899명중 1,695명이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1차 예방접종 대상자중 약 89.3%가 접종했다.

원광대병원은 접종대상자인 보건의료인 및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동의 후 사전 예약을 받아 실시한 1차 예방접종에서는 경미한 증상 외에 중증 이상 반응 현상을 보인 접종자는 발생되지 않았다.

2분기 접종 대상자인 교직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추진단 계획에 따라 오는 4월경 접종할 예정이며, 1차 접종을 마친 직원들의 2차 접종도 4월과 5월에 접종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생산·물류 정보관리 교육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는 관내 구직자 및 생산제조, 설계 분야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생산·물류 정보관리 ERP기초 과정과 Auto CAD 2D 실무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직무교육 프로그램은 최근 제조기업 생산현장의 자동화와 고도화에 따라 오퍼레이터의 기본능력으로 요구되는 ERP프로그램 운영과정, 설계 직무의 기초가 되는 Auto CAD 실무과정이다.

교육기간 동안 이론과 실습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해 해당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도움을 주기위한 과정이다.

각 과정 별 접수기간 및 인원은 생산·물류 정보관리 ERP기초 과정이 오는 4월 9일까지(모집인원 15명), Auto CAD 2D 실무과정은 4월 7일까지(모집인원 10명)이며 접수방법은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와 익산산림조합, (사)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 아가페 정원은 22일 민간정원 무료개방에 따른 아가페 정원 보전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익산 아가페 정원 '시민 휴식공간' 재탄생

### 시·산림조합·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아가페 정원, 업무협약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의 민간 시설과 협업을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는 명소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전 협약으로 시비 2억원을 투입돼 아가페 정원 일원에 산책로 1,670m, 포물기둥 1개소, 안내판과 수목포함, 편의시설 등이 정비될 예정이며 이용객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익산시와 익산산림조합, (사)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 아가페 정원은 22일 민간정원 무료개방에 따른 아가페 정원 보전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전 사업은 민간이 가꾸어 놓은 정원을 정비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미 조

# 신속집행의 핵심은 '지역경제 활성화' 강조

### 정현을 익산시장, 예산 집행시 지역업체 우선계약

정현을 익산시장이 22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우선 계약의 강력 추진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그동안 정현을 시장은 "계약 추진시 법에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익산 지역업체에 발주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정 시장은 "익산시 예산집행에 대한 수혜는 최대한 익산 업체에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하며 "지금 각 부서에서 신속집행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데 예산집행시 신속히 집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라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공사 발주시 물품을 분리 발주하는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합법적 방안 중 하나"라고 말하며 간부 공무원들의 독려를 당부했다.

이 밖에도 정 시장은 "정부의 2분기 집중계획에 따라 7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4월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되는데, 세부 계획에 따라 전 부서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익산 "종이팩·폐건전지 재활용하세요"

### 재활용 업체와 분기별 집중 수거

익산시가 폐지원 회수 취약 품목인 종이팩과 폐건전지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집중 수거에 나서는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1분기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재활용 수거업체와

합동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전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폐자원을 수거한다.

이어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종이팩과 폐건전지를 수거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화장지 등으로 교환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우유, 주스, 두유 등 종이팩에 대한 교환 기준을 완화해 시민들의 폐

자원 재활용사업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종이팩 200·500·1000ml에 대해 각각 50·25·15매당 친환경 화장지 1개를 교환해 왔으나 22일부터 40·20·10매로 완화했으며 폐건전지는 기존처럼 20개 당 새 건전지 1세트(2개)를 교환한다.

종이팩과 폐건전지의 교환을 원하는 시민들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청소자원과에 방문하면 교환받을 수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